

지난해 출산율 사상 최저 1.6명 아래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599명으로 1.6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연방정부가 24일 발표했다.

미국은 여성 1명당 출산율을 약 2.1명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였지만, 최근 20여년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통계치는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의 급격한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체외수정(IVF)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부모들의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 '베이비 보너스' 도입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의 인구·출산 정책 연구자 레슬리 루트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루트는 "우리는 이를 출산 지연이라는 장기적 흐름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국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자연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홈리스 강제 이송·치료 행정명령 도심 캠핑·배회 금지에 연방보조금 우선 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와 주 정부가 거리의 홈리스를 강제 이송하고 치료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설명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거리의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법적 관례와 동의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거리에서 공공시설을 해치며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센터, 외래 치료시설, 기타 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본디 장관에게 보건복지부(HHS),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DOT)와 협력해 불법 약물 사용, 도심 캠핑, 배회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주와 도시에 연방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벳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홈리스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거리의 범법 홈리스를 제거하고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미국인들

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안전을 느끼고, 중독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유리엘 바우저 시장에게 "국무부 주변과 백악관 인근을 포함한 보기 흉한 홈리스 캠프를 모두 정리하라"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정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연방 토지 내 모든 홈리스 캠프를 철거하도록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홈리스 정책 조율 기구인 연방 홈리스위원회를 해체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미홈리스법센터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 대변인 제시 라비노위츠는 "강제 치료는 비윤리적이고 비효과적이며 불법"이라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접근성이다. 트럼프의 조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홈리스 상태로 몰아넣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빼앗아 지역사회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 사기 연루 미국 여성 8년 6개월형

북한 IT 인력 글로벌 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인정한 에리조나주 출신 여성이 8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랜들프 D. 모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북한 측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28만4,000달러를 몰수하고, 이 여성에게는 북한 측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17만6,850달러를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가 기소한 IT 노동자 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북한 인력들이 미국 기업

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위 신분증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노트북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며, 이들이 마치 미국 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신분 확인 서류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집을 '노트북 농장'으로 꾸며, 각 노트북에는 해당 기업명과 등록된 신분을 표시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제공

병원 예약, 차량제공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